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김영대 서울고검장과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장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법사위 ‘조국 수사’ 격돌 “검찰권 과잉 행사” vs “가족사기단”

2019 국정감사

野 “도둑이 도둑 잡으라 하는 격”
與 “검찰권 행사에 책임자 필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었다. 야당은 조장관을 ‘가족사기단 수고’라고 지칭하며 검찰에 수사를 독려한 반면, 여당은 ‘무리한 표적수사’에 해당한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 수고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을 잡으라고 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의 일부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만들어 검찰과 충성경쟁을 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면서 “정권 장기 집권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자리에 있을 때 사모펀드 문제가 일어났

다”며 “서초동 집회는 기득권 특혜에 대한 분노,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열망이라고 본다”고 거론했다.

여당은 조장관 주변 수사가 검찰권의 과잉 행사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특수2부로 옮겨지는 과정을 누가 결정했는지 캐물었다. 그는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는지 과잉이 있었는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뒤에서 불투명한 결정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본격적인 압수수색 이전에 내사 과정이 있었는지, 수사 착수는 누가 최종 결정했는지 등을 물으며 검찰이 조장관을 내마시키기 위해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내사라는 이름을 안 붙였지만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이 없다”며 “압수수색은 대검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그래서 이게 이례적이라는 것”이라며 “이미 검찰이 조국 장관 내마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동원, 2019년도 하반기 신입 공채 진행



이며, 동원그룹 채용페이지에서 접수 할 수 있다.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11월 3일 필기전형(인·적성검사)를 진행하며, 최종 합격자들은 12월 말부터 약 3주간의 입문교육을 받게 된다.

김인철 동원그룹 HR지원실장은 “동원그룹과 세계무대에서 꿈을 펼치고 싶은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서류접수는 2일부터 15일 14시까지

/박인용 기자 parkiu7854@

“특권 대물림 해소, 대입 개편으로 불충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여론조사

성인 80% “現 교육, 대물림에 유리”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찬성 77.4%

성인 남녀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부모의 직업, 출신학교, 경제력 등의 배경이 자녀에게 대물림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방안으로 대입제도의 개편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절반을 차지했다.

7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5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부모의 직업, 출신학교, 경제력의 특권을 자녀에게 대물림시키는 ‘특권 대물림 교육’이라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84.2%였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3.4%였다.

‘공감한다’는 의견은 특히 40대 (92.5%)와 19~29세(91.0%)에서 높게 나타났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대 이상(19.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권 대물림 교육의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느끼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다’(52.6%), ‘다소 심각하다’(37.2%) 등 심각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9.4%였다.

‘이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대입제

도 개편(정시 확대나 학종 개선 등)만으로 충분한지 묻는 질문에는 ‘불충분하다’(51.8%)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고, ‘충분하다’(28.7%)로 집계됐다.

설문조사에서는 특권 대물림 교육의 해소를 위해 대입 제도 개편 이외에 추가적인 방안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대학 서열화 해소 ▲고교 서열화 해소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찬반을 물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매우 찬성 53.8%, 찬성하는 편 23.6%)이 77.4%였고, ‘반대’ 응답은 18.3%였다.

‘대학 서열화를 해소’에 대해서는 70.0%가 찬성했고, 26.0%는 반대했다.

/한용수 기자

대학가 소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취준생 맞춤법 점수, 낙제 겨우 면해

‘뒤처지지’ 오답률 65.3%

구직자들의 한글 맞춤법 점수가 낙제를 겨우 면하는 수준인 것으로 타났다.

사람들은 한글날을 맞아 구직자 2074명을 대상으로 ‘자소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 틀리기 쉬운 맞춤법’에 대해 양자택일형 문제로 물어본 결과, 총 10문항에 대한 구직자들의 평균 점수는 61.9점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가장 많이 틀린 맞춤법은 ‘뒤처지지’로 65.3%의 오답률을 기록해 10명 중 7명이 틀렸다. ‘어떤 수준이나 대열에 들지 못하고 뒤로 처지거나 남게 된다’는 뜻의 ‘뒤처지지’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자소서에서는 주로 ‘뒤

쳐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식의 어구로 많이 쓰인다.

두 번째로 많이 틀리는 맞춤법은 ‘~를 죽여’로 오답률은 61.4%였다. ‘목표, 이상, 행복 따위를 추구하다’, ‘남의 말이나 뜻을 따르다’는 뜻의 동사 ‘죽여’는 ‘쫓다’와 혼동하기 쉽다. ‘죽여’는 특히 자소서의 지원동기 문항에서 ‘꿈을 죽여 지원했다’ 등의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다. 이어 오답률이 높은 표현은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는 의미의 동사 ‘내로라하는’(54.7%)이었다. 자소서에서는 ‘내로라하는 100여개의 팀 사이에서 대상을 받았다’, ‘내로라하는 경쟁사를 제친 성과’ 등의 표현으로 쓰인다. 많은 구직자들이 ‘내로라하는’과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용수 기자 hys@

중학생 어휘력 ‘초등 고학년 수준이하’

응시생 절반 60점 이하

중학생 대상으로 초등학교 5~6학년 수준의 어휘력 테스트를 한 결과 평균 65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교육서비스기업 NE능률은 전국 중학생 남녀 5990명을 대상으로 ‘초등 교과 어휘력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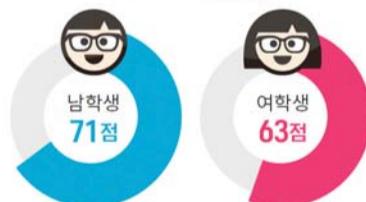
테스트에서는 NE능률의 초등 어휘 학습서 ‘세 마리 토끼 잡는 초등 어휘’를 기반으로 초등 고학년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어휘를 주려 학생들이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논리적 추론이 가능한지 등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전체 응시생의 절반 가량인 46.4%가 60점 이하를 받았고, 만점자는 4.3%에 그쳤다. 전체 평균 점수는 65점으로 집계됐고, 남학생(71점)이 여학생(63점)보다 평균 8점 높았다. 학년별로 중3(70점), 중2(64점), 중1(63점) 순이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는

성별 평균 점수

전체 평균 65점



학년별 평균 점수

3학년	70점
2학년	64점
1학년	63점

중학생 대상 초등 어휘 테스트 결과 /능률

‘부동산’과 ‘파출소’, ‘지점’, ‘구립’ 중 낱말의 뜻을 잘못 설명한 것을 찾는 문항으로 응시 학생의 60.3%가 틀렸다. 대중교통과 연관된 ‘편도’, ‘정차’, ‘환승’, ‘개찰구’ 등의 낱말의 뜻을 묻는 문항의 오답률도 48%로 많았다.

삼육대

2020년 수시 적성 23대 1

올해 삼육대 교과적성우수자전형은 238명 모집에 무려 5493명이 지원해 23.08대 1의 전체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과별로는 간호학과가 13명 모집에 901명이 지원해 69.31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물리치료학과가 56.70대 1, 컴퓨터공학부 27.58대 1을 기록했으며 특별전형 4명 모집에 20명이 지원하여 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중앙대 법전원 김병기 원장은 “올해 지원인원이 전년 대비 157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변호사시험 합격률, 검사임용률 등 각종 지표에서 꾸준한 상위권 성적을 기록한 것이 배경이다”라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법전원

2020년 수시 적성 23대 1

올해 법전원 김병기 원장은 “올해 지원인원이 전년 대비 157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변호사시험 합격률, 검사임용률 등 각종 지표에서 꾸준한 상위권 성적을 기록한 것이 배경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과적성우수자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와 적성고사 점수를 반영해 합격자를 가리는 대입 수시전형이다. 중위권 학생들이 서울과 수도권 주요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객관식 사지선택형으로 출제되며, 국어와 수학 각 30문항씩 총 60문항을 1시간 동안 푼다.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1월 4일이다.

/손현경 기자